

# 싱가폴 해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

## 1. 기본정보

이름	신의*	학과	관광경영학과
파견국가	싱가폴	파견대학	PSB 아카데미 시티캠퍼스
파견기간	2016. 1. 6. ~ 1. 28 <3주>		

## 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psb아카데미는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버스로 네정거장, mrt로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학교 일층에는 매점(식당)이 있어 점심시간에 바로 이용할 수 있었고, 헬스장이나 도서관, 서점도 있어 친구들과 이용하였습니다. 3주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한번도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이나 뛰어 다니는 학생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.
수업	처음에는 제가 항상 들어왔던 미국식영어가 아니어서 듣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선생님들의 말도 빠르기 때문에 더더욱 적응하기에 오래 걸렸던 거 같습니다. 하지만 선생님들은 액티비티를 섞어서 게임과 연결시켜 쉽게 설명해 주셨고, 저도 활동적인 게임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니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. 또 resume 나 cover letter 는 직접 컴퓨터로 써보며 고쳐주시고 뽑아주셔서 좋았습니다. 수업을 할 때 마다 큰 종이에 조끼리 토의한 걸 쓰고 발표를 하는 방식이어서 영어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기에도 좋았던 거 같습니다. 하지만 (두시간반 수업에 쉬는시간 십분~십오분) 수업시간이 너무 길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
Activity	수업 외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 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여부 등 수업 외 별도의 액티비티로는 산업체 방문이 있었습니다. 국립도서관, 도시개발청과 프레스 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. janoschka라는 프레스 회사를 방문했을 때 특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. 직접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해보고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. 이 산업체견학 후 친구들과끼리 모여 싱가포르에 취업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을 정도로 인상깊었습니다.

--	--

### 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우기여서 그런지 갑자기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우산을 항상 챙겨 다녔습니다. 실내는 에어컨으로 인해 춥기 때문에 가디건도 항상 챙겨 다녔습니다. 28~30도의 날씨여서 선크림은 항상 바르고 다녔습니다.
안전	밤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맞구나 싶을 정도로 위험요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길을 물어보면 따뜻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
숙소	학교기숙사( ) 홈스테이 ( ) 외부 숙소( o ) 기타( ) 숙소는 필요한 것들이 다 구비되어있어서 다 좋았습니다. 다만 책상이나 의자의 위치가 거실에 있어 공부하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.
식사	학교식당( o ) 홈스테이 ( ) 외부식당 ( o ) 기타( ) 점심은 학교식당 저녁은 차이나타운푸드코트에서 먹었습니다. 직원들도 장난을 걸 정도로 친해졌고 입맛에도 제일 맞아서 항상 찾아갔습니다.
교통	숙소에서 도로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. 33,63,851중 하나를 타고 4정거장 후 하차한 뒤 5분에서 10분정도 걸으면 학교가 나왔습니다. 버스도 자주오고 괜찮았던 거 같습니다.

### 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707,400원	출국 전 사전 납부
여행자보험	30,000원	출국 전 사전 납부
식비	380,000원	점심, 저녁
단체 생활비	50,000원	물, 세제, 그릇 등

개인 생활비	150,000원	기념품, 필요한 물품
관광	80,000원	티켓
교통비	80,000원	버스, MRT
합계	740,000원	

## 5. 출국 전 준비사항

한국음식을 접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의 음식을 챙기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에 환전하지 않고 한국돈을 가져와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차이나타운가서 돈을 환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꼭 우산을 가져와야하고 가디건도 가져와야합니다.

## 6. 본인 소감 및 평가

이번 3주동안 어학연수가 아닌 해외취업프로그램으로 갔기 때문에 더 생각이 많아져서 돌아왔습니다.. 영어가 진짜 부족하구나 어디서나 취업은 힘들구나를 특히나 느꼈고 한국가서 계획을 짜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느꼈습니다. 일단 남은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영어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. 또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커지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이런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실로소 비치



싱가폴 동물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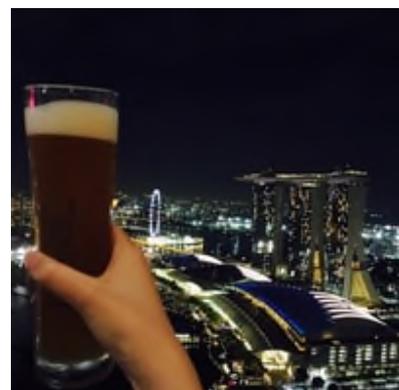
가든스 바이더 베이



멀라이언 파크



유니버설 스튜디오



레벨33에서 보는 야경